

## 李灌鎔氏의 (唯物批評 根據)의 (前言) 撤回를 要求하는 公開狀 (五)

裴相河

筆者의 『非唯物的 哲學觀』이 誤解를 바든 또 한 가지 原因으로써는 『非唯物的 哲學觀』이란 題目에 잇슬 것 같다. 그러나 이는 筆者의 뜻한 題目이 아니다. 本名은 『非唯物的인 것』이니 몇몇 個 非唯物的인 根源의 存在를 意味하는 바이다.

讀者도 깨다르려니와 『非唯物的 哲學觀』과 『非唯物的인 것』은 概念上 多少의 差異가 업다 할 수 업다. 첫째, 『非唯物的인 것』은 吾人에게 斷片的이라는 느낌과 가볍다는 感興을 준다. 反對로 『非唯物的 哲學觀』이라면 組織的 統括的인 느낌과 무겁다는 感興을 쓰을게 된다. 뿐만 아니라 『非唯物的 哲學觀』이란 題目은 唯物論者로서는 到底히 命名치못할 題目이나마 個個의 『非唯物的인 것』이라면 唯物論者로서라도 個個 몇몇의 非唯物的 要求를 說明치 안흐면 아니 될 境遇에는 能히 命名할수잇는 題目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非唯物的 哲學觀』이 아닌 『非唯物的인 것』이란 筆者의 論文은 個個의 非唯物的 要求를 說明함으로써 超點 삼은 論文이엇섯다. 그러타고 筆者는 決코 唯心論者가 아닌 것 가티 現在에 잇서서는 唯物論者 아니다. 그러나 筆者도 또한 將來에 잇서서 唯物論者가 될지 안될지 아모리 李先生의 『前言』이 斷定的이라한들 李先生의 『前言測만』으로 推하기 어려운 일이다.

以上の 論述로써 大概

- 一. 李先生은 나의 論文을 誤解하섯다는 것,
- 二. 李先生의 『前言』은 矛盾의 羅列이 아니면,
- 三. 根據업는 盲目的 獨斷이다의 三個 證明이 成立되엇슬줄 밋는다. 그리고 誤解와 矛盾과 獨斷 뿐인 論文이 한 사람의 學的 態度 卽 人格을 侮辱했다면, 그 사람은 當然히 그러한 書文의 撤回를 要求할 權利를 가질 수 잇슬

것이다. 그럼으로 筆者도 誤解와 矛盾과 獨斷 專인 書文인 李先生의 『前言』撤回을 要求한다. 『前言』은 筆者의 學的 態度 卽 人格을 侮辱하였기 때문이다. 萬若 『前言』撤回 要求를 拒絕하신다면, 拒絕의 原因 다시 말하면 『前言』成立의 根據 卽 나의 論文의 中心을 把握한 完全한 人格的 反駁文을 發表 하실줄 밋고 기다리고져 한다.

싣트로 『前言』撤回 要求의 功利的 理由로써 다음의 三種을 들어둔다.

一. 筆者 自身을 爲하여 그리한 侮辱的인 『前言』을 미듬으로써 讀者 여러분도 筆者를 誤解한다면 朝鮮 사람으로써의 筆者는 갈 곳이 업서지는 까닭이다.

二. 讀者 여러분을 爲하여 萬若에 그리한 『前言』을 撤回치 안는다면 그것은 讀者를 誤解케 함이니 讀者 自身으로 보아서도 讀者에 對한 侮辱이라 하지 안힐 수 업는 까닭에

三. 李灌鎔 先生을 爲하여

李灌鎔 先生이 朝鮮의 압길을 걷는 先輩이면은 先輩로써 後輩를 指導함에 넘우나 漠然한 까닭에 設令 後輩인 筆者의 論文이 逆說이엇섯든들 前言과 가티 責하시[지] 안트래도 指導자의 學的 精神을 가진 以上, 달리 教訓의 方法이 잇섯스리라고 밋는 까닭에 李先生도 朝鮮 사람이며 筆者도 朝鮮 사람인 까닭에 가르킴과 베희 사이에는 사랑이 잇서야 하겠는 까닭에, 그리한 『前言』은 도리어 李先生의 輕率하신 學的 態度를 表示하는 까닭에, 以上의 三 個 原因 中 一. 『筆者 自身을 爲하여』가 가장 重要함은 勿論이다. 讀者 여러분에게 誤解밋고 잇는 筆者 自身을 돌보면서.....

李先生에게 誤解바듬은 그닥 苦痛이 아니다. 讀者 여러분에게 밋는 誤解만 이 筆者 自身에게는 한 가장 큰 괴롭이다. 筆者는 讀者와 함께 일하고져 애 쓰는 까닭이다. 그리고 筆者는 아직 三四十年은 더 살 수 잇는 朝鮮의 젊은 사나회인 까닭이다.